

| | | | | | |
|--|---|-------|--|------------|-----|
| 번호: PO-MA-020 | | | | | |
| 제 목 | 일개 도시 지역 성인의 영적건강, 영적 요구도, 지각된 건강상태에 관한 연관성 The association of spiritual health, spiritual need with perceived health status of adults | | | | |
| 저 자 및 소 속 | 윤미라1), 이강숙 2), 이선영3) 1)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Mi Ra Yoon 1), Kang Sook Lee 2), Seon Young Lee 3) 1)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 | | |
| 분 야 | 의료관리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 발 표 자 | | 발 표 형 식 | 포스터 |
| <p>목적: 본 연구는 일개 도시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영적 건강과 영적요구도를 파악하여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영적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적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p> <p>방법: 본 연구는 2005년 5월 일개도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지역주민 230명을 대상으로, 영적건강에는 2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적척도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영역은 신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실존적 영역은 삶의 목적, 삶의 만족에 관계된다. 영적요구도에는 영적요구 사정도구 30문항으로 측정된 하였고, 영역별로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10문항,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12문항, 용서받고 싶은 요구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영적건강과 영적요구도, 지각된 건강상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영적건강과 영적요구도의 관계와 영적건강과 지각된 건강상태는 Pearson상관계수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건강과 영적요구도, 지각된 건강상태는 t-test와 ANOVA를 사용 후 Scheffe test로 다중 비교하였다.</p> <p>결과: 대상자의 영적건강 정도는 평균 3.62점이었다. 영역별 영적건강 정도는 실존적 영역에 3.71점으로 종교적 영역 3.52점 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영적요구도 정도는 3.79점이었고, 영역별 요구도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4.00점,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3.80점, 용서받고 싶은 요구 3.53점이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3.27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건강은 성별, 학력, 종교, 월수입, 질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적요구에서는 종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성별, 학력, 월수입, 질병유무 및 질병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적건강과 영적요구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으며, 이는 영적건강이 좋을수록 영적요구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영역별 영적요구도에 대한 영적건강과의 상관관계는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r=0.54$),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r=0.40$), 용서받고 싶은 요구($r=0.24$) 순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영적건강과 지각된 건강상태와의 상관관계는 실존적 영역($r=0.36$)과 종교적 영역($r=0.21$)에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결론: 영적건강과 건강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성인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있어 영적건강 부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p> | | | | | |